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기사자에게,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날씨도 봄! 축구도 봄!

유소년축구 훈련시작한 날

주님의교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소년 축구 클럽이 3월 21일부터 다시 운동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11시 30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은 1시 30분에 축구를 시작한다. 1기때보다 기초 기본을 더욱 다지는 데 더 시간을 가지기로 하여 몇 주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 명의 축구코치가 담당해주고 있으며 초등은 특히 학년별로 4팀으로 나눠서 각각 선생님의 지도를 받게 된다. 앞으로 1학기동안 경기대회를 가지고 미사리 경기장은 2번 다녀오기로 결정되었다. 신코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만드는 시간도 필요하다. 축구선수를 키울려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뛰놀며 실력도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전했다. 유소년 축구클럽은 이용수 부장집사와, 김태원 총무집사가 있다. 1시 30분부터는 유소년 축구클럽을 위해 운동장 주차가 불가하므로 성도의 협조가 필요하다.



경조위원회 첫모임 갖고 교구별 경조위원 확정

교구사역자를 중심으로 교구별 조장과 위원을 선정

지난 23일 경조위원회 모임이 소예배실에서 있었다. 경조1부장 신정웅집사의 사회, 경조2위원장 정규창장로의 기도에서 이어 김성관목사의 말씀이 있었다.

미래에 누구에게나 닥쳐올 개인적 중 말을 앞두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일은 더욱 기도에 힘쓸 것과 열심히 사랑할 것을 권면하였고, 특히 사랑에 대한 실례가운데서 서로 대접하되 원망없이 하고, 봉사하되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같이 행하므로 봉사후에 불평불만이 없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경조1위원장 계학용장로의 권면의 말씀이 있었다. 2004년도 교구의 경조예식을 위해 봉사할 교구별 경조위원명은 다음과 같다. (4면에 이어짐)



사진설명: 유소년축구클럽의 훈련장면

2004년 고난주간특별행사

새벽기도회, 영화함께보기, 칸타타&성찬식

수요성경공부,구역모임,양육과정은 모두 휴장

이번 주일(28일)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인 4월 4일은 종려주일, 4월 5일~10일은 고난주간, 4월 11일(주일)은 부활주일이다. 올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주제로 우리교회에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첫째,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4월 5일에서 9일까지(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5시30분에 “내가 듣고 고칠지라!” (대하 7:14)의 주제로 대예배실에서 드리게 된다. 특별새벽기도회 기간동안에는, 수요성경공부와 모든 양육과정 및 구역모임이 휴장하게 된다.

둘째,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수난) 라는 영화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교회에서는 4월 8일(목) 오후 7시 30분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 4월 11일(주일) 오후 4시 을지로 2가 중앙시네마를 예매했다.

티켓은 다음 주일(4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층 자원봉사안내데스크에서 선착순 발매될 예정이다. 표 한 장의 값은 기존표값 보다 500원이 할인된 6,500원이다.

셋째, 4월 9일 성금요일 저녁 오후 7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는 3부 찬양대인 샬롬찬양대가 준비한 칸타타 “고난의 찬송”과 연이은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다.

문희곤 목사청빙

예수전도단대표, 협력목사로 가정사역과 중보기도사역을 맡을 예정

장년부 양육과정의 일부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전도단 한국대표인 문희곤 목사가 협력목사로 청빙되어 섬기게 되었다. 지난 3월당회에서 결의된 바대로 장년교육의 일부분과 특별히 가정사역 분야와 중보기도사역 분야, 그리고 선교적 마인드를 강요하고 고취하는 일을 맡게 될 예정이다. 문희곤 목사는 고려대학 통계학과, 1993년에 합동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 1994년에 목사안수를 받고, 현재 한국 예수전도단 대표로 한국내의 전 지부를 돌보며 섬기고 있다. 대학시절부터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고 신학대학원 3학년때부터 예수전도단 전임간사로 사역해왔다. 예수전도단 본부에 있으면서 행정과 간사를 돌보는 일, 청소년 집회와 대학생 모임, 직장인들 모임과 많은 관계를 갖고, 예수전도단출판사를 맡아서 도서와 음반작업을 하면서 직장조직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 갖고 있다. 개인적 소명은 청년들과 각 세대를 일으켜 선교에 대한 도전과 비전을 주고 훈련시켜 이 나라와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 한다.



정신여중 성경시간, 교회학교 중등부 소개하는 시간가져

“중등부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문구는 중등부 예배실인 소예배실 정문문에 주일마다 붙이는 현수막에 담긴 중등부 교사들의 사랑의 마음이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나 청소년들은 요즘 고민이 많다. 서로 고민의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경험이다. 중등부는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

만 이 시간을 통해 최선을 다해 중등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

지난 주일에는 정신여중 1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성경시간을 이용하여 중등부를 알리고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소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주일에는 정신여중 친구들을 포함하여 12명의 친구들이 새롭게 중등부를 찾아왔다. 정신학원선교부 총무로 수고하는 손천숙 권사는 중등부를 도와 1학년 뿐만 아니라 2학년과 3학년 성경

시간을 이용하여 중등부를 소개하고 신앙교육을 돕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우리 주변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지금 방황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또한 청소년은 아직 고정되지 않은 내일이 있기에 가

능성과 희망이 있는 존재다.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의 일생을 바꿀 줄 헌신된 교사의 역할은 너무나 귀하다. 중등부는 함께 동역할 신임교사를 찾고 기다리고 있다.

통합아동부 '레인보우' 그 힘찬 출발

3월 7일부터 9시 30분에 통합아동부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부서의 이름은 레인보우(RAINBOW). 무지개 색깔만큼이나 다양한 학년의 어린이가 한자리에 모인다. 첫예배 시 5명의 어린이들로 시작한 소모임에서

아직 한 달이 채 안되었는데 20명이 넘게 모이는 부흥을 체험하고 있는 행복한 부서이다. 매주 수요일이 되면 담당 교역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다음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열심을 지속하고 있다. 평신도 전문 사역의 좋은 본이 되고 있다.

양육과목소개 1 / 말씀묵상 출발

“말씀묵상은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일입니다”

2004년 1학기 성경공부 과정중에 “말씀 묵상출발”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지하찬양연습실에서 1시간 30분동안 강의와 나눔의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큐티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개인의 삶속에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램이다. 정희성목사는 “말씀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읽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일입니다. 청춘남녀의 데이트가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존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데이트는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존의 삶을 더욱더 의미있게 세워가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한다. 큐티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몇몇 분이 계시지만 절대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낯설고 새로운 삶의 여정이지만 하나님과의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최소한 10-30분정도 가질 것을 주장하면서 시작되는 「말씀묵상출발」과목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는 기대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여정에 함께 동승하기를 원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한다.

살롬찬양대, 성금요일 칸타타 연습에 열중

3부예배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살롬찬양대가 오는 4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성금요일 음악예배를 드린다.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주제에 맞게 살롬찬양대는 “고난의 찬송”을 부를 예정이다. David H. Williams의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으로 Vickie Garrison의 ‘사랑의 십자가’, Joseph Marin의 ‘한 믿음 가지고’ 등을 합창한다. 또한 많이 알려져 있는 Adams의 ‘거룩한 성’과 Franck의 ‘생명의 양식’을 소프라노 김수진의 독창으로, 그리고 G. Grape의 ‘내 주의 보혈’과 A. Crouch의 ‘샘물과 같은 보혈’을 트럼본 독주로 찬양한다. 특별히 이번 “고난의 찬송”을 위해 부천시향 수석을 역임하고 단국대 기악과장으로 있는 김경환 교수가 트럼본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된다.

King's Kids & King's Teens

King's Kids와 King's Teens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며, 세상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생각을 품게 하고, 내가 즐기던 것을 주님을 위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양육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다. 5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저녁 7시 50분까지 주님의교회에서 구원의 확신, 묵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 중보기도, 영적전쟁 등의 훈련받게 된다. 특별히 8월 중에는 이스라엘로 전도 여행 또한 계획중에 있다.

목요모임 / 남서울교회 민 걸 장로 메시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순서는 선착순”

목요모임 다음주부터 7시 30분에 시작

3월 25일 목요모임, 신한은행지점장으로 있는 남서울교회 민걸 장로가 말씀을 전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순서는 선착순’임을 강조하며 세계사적 사건과 한국의 85년 거문고 사건에서 비롯해서 88년 한국 올림픽 개최, 97년 IMF,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거치며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사건을 들어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하게 했다. 말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세계사의 중심축이 될 Hub Korea가 진행형에 있다. 그러나 세계사적으로 이

스라엘, 로마, 영국, 미국을 볼 때 깨달아야 할 점은 경제대국, 정치대국이 되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길을 놓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사실적 근거와 장로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얻은 영적인 메시지는 중대한 시대적 상황을 깨닫게 하였고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

예수전도단 문화곤 목사는 말씀 후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듣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더 많은 사

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라고 전했다. 사랑의 교회에서 온 유주현(33)양은 “예수전도단 훈련 받고 계기로 오게 되었다.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말한다. 온누리 교회에서 온 형제, 자매는 “오늘 예배를 통해 희망을 느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가 많은데 다른 각도로 생각하게 해주었다. 또 오늘 말씀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했다. 다음 목요모임(4월1일)부터는 직장인들을 위해 저녁 7시에서 7시 30분으로 시작시간을 늦추게 된다.

듣는 마음이 필요한 이시대

소설가 정연희 권사의 강의

권사회 3월 월례회가 16일(화) 11시 1층 자모실에서 이자연 권사의 인도로 열렸다. 이 달에는 특별히 한국 소설가 협회 이사장으로 있는 소설가 정연희 권사가 1시간 동안 진지하게 강의를 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교회, 가정, 사회 전반에 걸쳐 피차 듣는 마음이 없음으로 심각한 의견대립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걱정하였다. 피차 듣는 마음이 없으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하지 못한 채 진리 아닌 것도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상식처럼 통한다. 이제 우리는 귀와 마음을 열고 피차간에 말과 입장 상황 등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바르게 내다 볼 줄 아는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옳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며 온 인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작은 한반도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 놓으신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 이어서 이동순 권사회 회장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묵상한 후 모두 통성으로 나라의 안정과 민족의 화합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며 이상경 권사의 마무리 기도로 3월 월례회를 마쳤다.



비전팀, 청소년사역 3단계 추진전략 제시

비전팀이 지난 3월 20일(토) 오후 4시 소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그동안 4차에 걸쳐 논의된 내용들을 중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비전팀 지도목사인 정영환 목사는 중간정리 발표를 통해 1.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도움을 받음으로써 비전의 폭을 넓히고 구체화하고, 2. 명실상부한 주님의교회 비전팀이 될 수 있도록 교회내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대표성 확립하고, 3. 교인들에게 비전팀의 활동을 설명하고, 논의의 동심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팀장 권오승 장로는 청소년 사역의 목표와 대상 및 사역의 내용을 명료하게 요약 정리하면서 청소년 사역의 추진 전략을 3단계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전팀은 밖으로는 전문가 초청을 구체화시키고 안으로는 청소년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면서 실행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로 하였다.

“Challengers”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 세미나

교육위원회에서는 2004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세미나 “Challengers”를 준비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합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에게 주님의교회 교사자격을 수여합니다. (문의 : 최인영전도사 016-744-4663)

3/27(토)

challenge 5 pm5-6:30

AWANA 1

이중국 목사(어와나코리아)

challenge 6 pm7-8:30

AWANA 2

이중국 목사(어와나코리아)

3/28(주일)

challenge 7 pm3:30-5

AWANA 3

이중국 목사(어와나코리아)

challenge 8 pm5:30-7

교사 부흥회 2

홍민기 목사(강남교회)

육군훈련소팀, 다른교회와 공동예배사역의기를 마련

지난 주일 오후 2시 육군훈련소사역팀은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사역을 위해 출발하였다. 팀장 장순웅 집사를 비롯하여 12명의 팀원이 참여한 이번 사역은 TNF 선교회, 인천 꿈이있는교회 뮤지컬팀 '피스'와 함께 하였고, 다음 사역을 위해 금란교회 찬양팀 '쉐마'와 동행하였다. 사역팀은 그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교회 지하1층 영아부실에서 육군훈련소사역을 위한 중보기도모임을 계속해서 가져왔다. 이번 사역에서는 주일 오후 5시 50분과 7시 10분 두 차례에 걸쳐서 예배에 함께 참석하면서 장병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였다. 예배에는 논산에서 훈련중인 7,000여명의 장병들이 참석하였는데, 뮤지컬 다음에 이어진 메시지를 통해 많은 장병들이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는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다. 다음 사역은 5월 2일에 있을 예정이며, 이 사역에 관심이 있는 성도는 매주 목요일 기도모임을 통해 동참할 수 있다.



사진설명 : 훈련병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모습

양육과목 소개 2 / 그리스도인과 생활법률

생활법률과 하나님 말씀 관계조명

성도들에게 법률상담을 해온 변호사 김완중 집사가 강의하는 본 과목은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층 대회의실에서 1시간 반가량 진행된다. 본 과정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법률을 연구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알았던 생활법률과 하나님 말씀과 관계를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현역에서 변론을 하고 계시는 김집사의 연구 교육으로, 자칫 지루하기 쉬운 법에 관한 부분을 재미있고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법률과 하나님 말씀과의 직접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자료가

별로 없지만 담당 강사님의 많은 연구로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중이다. 특히 지난주에 교육한 혼인의 법률관계 강의에서는 하나님 말씀 막10:11에 1부 1처제를 분명히 지적하신 말씀 등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활법률과 많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생활법률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새로운 것도 발견할 수 있고, 생활법률도 익히게 될 것이다. 관심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참여 가능하다.

양육과목 소개 3 / 젊은 어머니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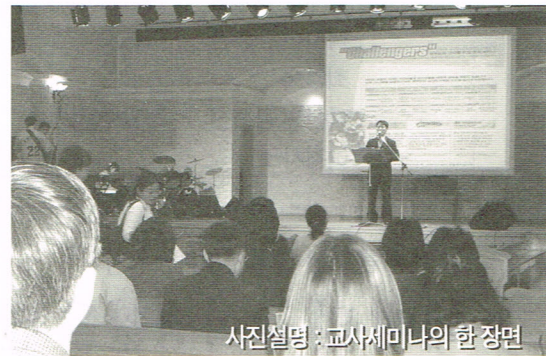
“영향력있는 어머니, 기도의 용사 어머니로의 부름을 깨닫도록”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층 중보기도실에서는 20대 후반으로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16여명의 ‘젊은 어머니들’이 모인다. ‘젊은 어머니 학교’는 올 해 3월부터 주님의교회 협력목사로 사역하게 된 예수전도단 대표(국제 YWAM 한국대표) 문희곤목사의 부인이며, 현재 예수전도단 간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혜경간사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양육반이다. 김혜경간사는 자신의 기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젊은 어머니 학교’를 통해 어머니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얹으로써 영적으로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며, 어머니됨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자의 강의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한 간증들, 그리고 젊은 어머니들의 참여와 나눔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향력있는 어머니’로서, ‘기도의 용사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도록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임에 참석한 어머니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아픔이 치유되는 가정으로, 주님이 주인되시는 가정으로 인도되기를 기도하였다.



교회학교 교사는 Challengers(도전자들!)

교육위원회에서는 “Challengers”(도전자들)이라는 이름으로 교사 세미나를 지난주 토요일 주일과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 2주간 하루에 2강씩 8강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오늘도 오후 3시 30분부터 중예배실에서 AWANA(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딤후 2:15)라는 미국에서 시작된 교회학교 2부 프로그램과 탱크목사로 알려진 강남교회 홍민기 목사의 교사 부흥회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명성교회 메빅(MEBIG=Memory Bible Game)팀의 이기동 전도사와 김현령 전도사의 강의, 그리고 강남교회 홍민기 목사의 교사부흥회가 있었다. 한국 교회의 침체와 교회학교의 쇠퇴가 점점 더 깊어져만 가는 현시점에서 간절히 교회의 회복과 교회학교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과 철학 및 원리와 개념들이 이번 교사 세미나 기회를 통해 교사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고 있다. 메빅은 일본에서 시작된 교회학교 예배 프로그램으로 명성교회에서 도입하여 활발하게 적용하여 성공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실제로 메빅을 사용하는 명성교회 메빅팀이 와서 이론과 실재를 직접 실행해 교사들이 같이 참여하여 몸으로 느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김현령 전도사는 요한복음 4장 39~42절 말씀을 근거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이신 예수님 자체를 전하기보다 자신의 과거를 맞춘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오류를 지적하며, 교사들 역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방법론이나 이론에 기초한 부흥의 기호(sign)들에만 빠지지 말기를 당부했다. 홍민기 목사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관계와 진실한 관계를 먼저 맺을 것을 당부하면서 관계를 맺는 노력과 함께 구체적인 기도의 땅을 강조했다.



사진설명 : 교사세미나의 한 장면

영화 소개

The Passion of the Christ는 어떤 영화인가?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조감독의 간단하지만 무거운 기도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을 고스란히 담은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조용히, 예수님이 갓세마네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는 장면 속에 우리를 던져 넣는다.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돼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맞을 때까지 겪는 ‘수난’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관객의 입장에서 여기저기 확인하다 자신도 모르게 영화속에 묘사된 군중들의 틈바구

니에 휩싸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징 박힌 채찍에 예수님의 맨살이 뜯겨져나가고, 얼굴과 온 몸이 피로 만신창이가 되어 가는 과정을 그저 아무 말 없이 숨죽이며 그들과 함께 바라만 보고 있는 강박한 나의 진짜 얼굴도 보게 된다. 이전의 다른 영화보다는 몇 배나 더 길었을 ‘십자가 행렬’... 예수님 그분이 인간으로서 누렸던 생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의 사랑을 추억하며 눈물겹도록 정겨운 ‘인간적인 모습’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마구 짓누른다. 그러다보면 가만히 눈물이 고인다. 채찍질로 떨어져 나가는 예수님의 살점을 보면서 뻔뻔했던 사람도,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얼굴마저 외면할 수는 없으리라.

마침내 못이 예수님의 손을 통과해 차갑고 무거운 십자가에 빠져나와 피를 뿜을 땀 슬픔과 고통과 감동과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으로 뒤덮인다. 영화는 육중한 무덤 돌문이 열리고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조용히 끝난다. 다음은 이 영화를 제작한 멜 깁슨의 인터뷰 내용이다. “몇 년 전 창밖을 바라보다가 왜 내가 지금 창밖으로 뛰어내려서는 안 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 당시 내 삶은 너무 지루했고 내겐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난 비로소 예수님께 의존하게 되었다. 난 정말 나쁜 놈이다. 내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다. 난 그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고 싶었다.”

연속세미나 프로그램 / 영화상영

“니모를 찾아서”

중예배실에서 1시20분부터 상영

앤드류 스탠튼, 리 윤크리히 감독의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는 지난해 6월에 개봉되어 어린이들은 물론 많은 어른들에게도 사랑을 받은 가족용 영화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아들 니모를 지느러미 끝 하나 다칠세라 과잉보호하며 키우던 아빠 물고기 말린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다! 열대어 수집광인 치과의사에게 니모가 납치되고 만 것. 평소 소심의 극치를 보이던 말린이지만 아들을 구하기 위한 일념으로 상상도 못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다 여행에 과감히 뛰어든다...봄의 기운이 만연한 오늘! 가족과 함께 아시아 공원을 산책한 후 관람하기에 좋은 추천할 만한 영화이다. 이 프로그램은 Challengers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세미나의 부속프로그램으로 1시 20분부터 중예배실에서 상영된다.

청년부 봉사활동 통해
장애인 정신지체아들과
즐거운 시간가져

지난 주일 21일, 예배후 모임에서 청년 1부는 3월에 생일을 맞은 지체들을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축하를 받은 지체는 김종관 형제, 정종호 형제, 옥운화 자매, 김지영 자매로 대부분 이미 생일이 지난 이들이었지만 다시금 축하를 받으니 행복해 하는 모습이었다. 생일을 맞은 이들은 생일날 어떻게 지냈는지를 나누며 귀한 생명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을 가졌다. 선물로는 문화상품권이 주어졌다. 청년부 봉사활동을 위하여 4부예배를 마치고 청년2부는 두 개의 팀을 이루어 거여동에 위치한 루디아의 집과 무지개 홈스쿨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윤은성 목사도 루디아의 집을 방문하여 시각장애인 할머니들과 산책봉사를 하였다. 무지개 홈스쿨에서는 청년들이 준비한 재료로 직접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정신지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놀이를 통해 친교를 나누었다. 청년 2부의 봉사활동은 매달 세번째 주일에 이루어진다. 봉사를 원하는 모든 청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하늘나라 경찰관
3월의 좋은 책 읽기
(Little Bubble Gum Trooper)

린다 버젠탈 폴링 지음
네 살 반짜리 외아들 크리스가 어느 날 백혈병이라는 선고 를 받았다. 남은 시간은 3년. 스물 여섯 살의 평범한 엄마 린다는 충격과 원망 속에서도 기도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생을 살 수 있는 3년을 주셔서요. 오늘밤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셔서요. 제가 최고의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아이의 남은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로부터 3년간 크리스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린다는 크리스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기 위한 눈물겨운 세월을 이어간다.

어느새 3년이 흘러 마지막이 가까웠다. 커서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크리스의 사연을 알게 된 지역 경찰관들이 크리스를 고속도로 순찰대의 경찰관으로 임명했다. 제복에 모자에 구두에 뱃지까지 착용한 아리조나주의 최연소 경찰관 크리스는 오토바이 순찰과 헬리콥터 순찰을 경험하며 평생의 소원을 이룬다. 그리고 좋아하는 풍선껌을

불면서 으시댄다. "나는 이제 진짜 경찰이니까 언제까지나 엄마를 지켜줄거야." 크리스는 곧 숨을 거두고 동료경찰관들은 그를 경찰장으로 장사지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린다와 그 때의 경찰관들은 불치병에 걸린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단체를 만들자는 뜻을 모았다.

그것이 메이크 어 위시(make a wish)재단의 모태가 되어 세계 27개국에 지부를 둘 만큼 발전되었고 2002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활동이 시작되어 지난 해에는 스물여섯명의 위시 키드(wish kid)를 탄생시켰다.

경조위원 명단 (1면에서 계속)

경조1위원회 (경조1부) / 위원장:계학용장로 부장:신정웅집사,배홍자권사

1교구		2교구		3교구		7교구	
장로	문창복,윤좌원	최창섭,정규창	계학용,전세표	정재경,권오승			
안수집사	장일형,김창안	최경호	강대준,한득현	박중규,조원호			
권사	남현숙,최윤정	전은숙,김귀옥	김형기A,이경희B	박경옥,강은애			
		김성애					
조장	김금숙,최영순	장경애	강옥희	최승의			
위원	김병철,김순향	홍연자,최재경	이승숙,박순희	윤영숙,김미자			
	전영선,서은숙						
	박인호,방혜준						
	김세준,안옥철	권승님,이서구	최종만				
	백지선,송정현	박현자					
	최영숙						
박선일,김정선	장관주,전용순	김예곤,이봉우	김성배				
이경자B							

경조2위원회 (경조2부) / 위원장:정규창장로 부장:장승수집사,오영실권사

4교구		5교구		6교구	
장로	양동훈,성백술	김소일,황기연	이병식,김현덕		
안수집사	김영중A,김영봉	김한중,한형석	장승수,서인석		
권사	김양자,고초순	노봉옥,이상경	강정혜,이창성		
조장	유임순,현순자	정선용,라선희	문춘자,손혜선		
위원	이재현,이혜숙	송경녀,김만수	권화일,김경미		
	유종선,정해춘	박영남	변아경		
	최성화				
	김매자,장혜경김옥라	임정자송승엽,이연숙A,김영희B	오종세,최장규		
			박순항		
왕미자,유영옥	김경희B	김순희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주일)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정기 예배 (주중)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8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3.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4.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7.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